

사회

“공부로 효도하고 싶었어요”

고흥고등학교 첫 서울대 합격 손연지 양

어려운 가정 형편 극복

고흥고등학교 손연지(18)양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꿋꿋하게 공부해 서울대에 당당히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다.

손양은 지난 1975년 고흥여자 실업학교로 개교, 지난 1993년 인문계로 전환한 고흥고 역사를 통틀어 최초의 서울대 합격생이다.

12일 고흥고등학교에 따르면 손양은 이번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계열 수시모집의 기회균형선발 가운데 저소득 계층 부문에 지원해 합격했다.

손양은 열악한 가정환경, 농어촌 교육 여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성적을 일궈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수능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등 전 영역에 걸쳐 2등급 이상을 받았다.

특히 서울대 전형에서만 저소득 부문에 지원했고, 고려대 영어교육과, 연세대 행정학과, 서울고대



고흥고를 거치면서 이같이 괄목할 성적을 낸 것은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2녀 중 맏이인 손양은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좌절하지 않고 이같은 성과를 이뤄내 주목받고 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생활했지만, 가난도 배운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손양은 “공부로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싶은 생각 뿐이었고, 시골 학교 출신이라는 편견에 도전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며 “학교 공부를 마친 뒤 해당 과목의 실전 문제를 풀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웠고, 이해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점검한 것이 학습 비결”이라고 말했다.

손양은 중학교 때 뛰어난 성적을 눈여겨본 타 지역 명문고의 입학 제의를 받았으나, 결국 고흥고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학금 등 과격적인 지원 약속에도 고생하는 어머니 결을 떠나지 않으려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다.

고흥고도 손양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장학금 등을 지급하며 학습의지를 북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고 김 부 교장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내년에도 더 많은 학생이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손양은 “공부로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싶은 생각 뿐이었고, 시골 학교 출신이라는 편견에 도전하기

강추위 몰려온다

15~16일 광주·전남·북에 많은 눈

이번주 중반에 광주·전남·북 지역에 강추위가 몰려올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광주·전남·북지역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일부 지역에서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12일 예보했다.

15일과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1도~5도가 예상돼 평년보다 3~4도 가량 낮겠으며, 금요일인 17일 오후부터

점차 풀려 평년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한편, 13일 광주·전남에는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오겠고, 새벽에 기온이 낮은 지리산 등 동부 내륙 일부 지방에서는 눈이 내리겠다. 광주·전남·북 예상 강수량은 5~10mm, 전남해안 5~40mm이며, 전북 동부내륙 예상 적설량은 1~3cm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전교조 위원장에 장석웅 교사

<남평중 다도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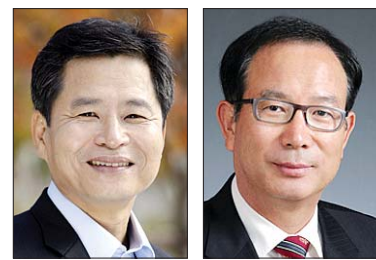
시도교총협회장에 송길화씨

제15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당선된 장석웅(55) 남평중학교 다도분교 교사는 12일 “교원과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자유를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장 당선자는 이날 당선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과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교사들도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당선자는 특히 “제 교원단체와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밝혀 최근 교원의 참정권 확보를 선언한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도 연대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송길화 광주 교총 회장이 ‘2011년 전국 시·도 교총 회장 협



장석웅 위원장 송길화 회장

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2일 광주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밝혔다. 송 회장은 지난 10~11일 목포 신안 비치 관공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총회장 협의회에서 내년 회장으로 선출됐다.

송 회장은 “시·도 교총과 한국 교원의 참정권 확보를 선언한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도 연대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 날씨

호박이 생다니는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대부분 그치겠다.

Weather forecast table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Seoul, Gwangju, and Jeonnam.

Sea and tide information table for Jeonnam coast.

Weather forecast table for the next few days.

하나SK카드 Touch 1 카드 출시! Advertisement for SK card.

전남 전문계고 입학 ‘가·나·다군’제

교육청, 내년부터 도입

내년 전남지역 전문계고 전형 방식과 일정 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전남도교육청은 12일 “2012학년도 전문계고 전형 방식을 현재 2차례 응시에서 3차례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직업계열 학교를 지칭하는 전문계고 전형은 가장 먼저 ‘가군(群)’에서 마이스터고(한국향남물류고)를 지원하고 이후 나군(群)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2012년 전형에서는 가·나 이외에 다군(群)을 신설, 모두 3차례 응시 기회를 주게 된다. 나군에는 기존 특성화 학교나 학과, 수산과 농업 등 특수목적고 등이 포함되며 다군에는 가·나를 제외한 학교나 학과가 대

상이다. 학생 수 기준으로 나군이 40%, 다군이 60% 가량 포함될 전망이다.

도 교육청은 이 개선안이 응시 기회 확대와 함께 고질적인 미달사태를 빚은 일부 전문계고의 학생 충원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가, 나군 등 2차례 응시 기회에서 실패한 경우 수험생의 소절이나 적성 등과는 달리 일반계고(후기) 진학을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함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11월 상·중순이면 마무리된 전형일정도 12월 5일까지 마쳐도 늦게 늦추기로 했다. 전남지역 전문계고는 마이스터고 1곳을 포함 모두 61곳에 올해 기준 신입생 정원은 7887명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의·약사 경조사비도 의약품 리베이트

복지부 원천 금지

의·약사에 대한 경조사비나 명절 선물, 소액물품, 강연료, 자문료는 의료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는 의·약사와 함께 처벌하는 생벌 러스지킴이(지역주민 자원봉사단)를 모집해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 대상 자 집을 방문해 이의식조리, 유아간식 만들기 등 맞춤형 영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양수현기자 yang@

회 심사에서 결정된대로 경조사비, 명절선물, 소액물품, 강연료, 자문료는 의료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법령에 준수 가능한 리베이트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기타 항목에 포함된 경조사비 등의 준수범위를 아예 삭제했다. 규제위는 경조사비 등의 허용기준을 적시함에 따라 오히려 편법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양성화하고 의약계 영업환경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연남스



교통사고 줄이기 꿈나무 창작문화예술제 (사)광주선진교통문화범시민운동본부는 11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제1회 교통사고 줄이기 꿈나무 창작문화예술제’를 개최했다.

광주 동구, 임산부·영유아 영양사업 전국 최우수

광주시 동구(청장 유태명)가 보건복지부의 ‘2010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평가’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오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Large advertisement for travel services including flights to London, Shanghai, and Japan, and cruises.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외 광고회사 등에 관한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